

작품 내용

제 목	'잠깐만, 이거 써도 될까?'라는 생각
내 용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을 찾으면 별생각 없이 저장해서 과제에 사용하곤 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는 것도 너무 익숙해서 그것들이 모두 누군가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해 배우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발표 자료를 만들던 날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다가 문득 '이 사진도 누군가가 직접 찍은 건데 그냥 써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출처를 확인해 보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도 있지만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사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에는 SNS를 볼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상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고, 사진 한 장도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번 찍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냥 재미있는 콘텐츠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노력도 함께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과제를 하면서도 저작권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출처를 표시하고, 내 방식대로 다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다. 나도 공부를 하거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AI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주고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생성형 AI가 유명 화가의 그림체를 비슷하게 따라 그려 논란이 된 사례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그림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작가들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AI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자의 권리까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AI가 발전할수록 기술만큼이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이 단순히 규칙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창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더 크다. 자신의 작품이 존중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노래도, 그림도, 책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사용할 때도, 영상을 볼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한 번쯤은 '이것도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런 생각이 모이면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저작권은 특별한 사람만 알아야 하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가까이 있는 약속이다. 앞으로도 과제를 하거나 AI를 사용할 때,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창작물을 이용할 때도 창작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